

예 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6. 12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7
IV. 국제신인도	9
V. 종합의견	11

I. 일반개황

면적	528천 km ²	G D P	377억 달러 (2015년)
인구	28.3백만 명 (2015년)	1 인 당 GDP	1,334달러 (2015년)
정치체제	대통령중심제	통화단위	Yemeni Riyal (YR)
대외정책	친아랍, 친서방	환율(달러당)	214.89 (2015년 평균)

- 예멘은 한반도의 2.4배 넓이의 국토에 2,83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,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 위치하여 사우디아라비아, 오만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.
-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원유 매장량의 점진적 고갈로 인해 1인당 GDP가 1,334달러(2015년 기준)에 불과한 중동 지역의 최빈국으로, 경제의 대부분을 석유 수출과 농업에 의존하고 있음.
- 1990년에 이슬람 국가인 북예멘과 사회주의 국가인 남예멘이 통일된 이후 북예멘 출신의 Saleh 대통령이 장기 집권해왔으나, 2011년 2월 민주화 시위 발발로 2012년 초에 정권이 교체되고 前부통령인 Hadi가 과도 정부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음.
- 과도정부 수립 후에도 친정부, 반정부 세력간 갈등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우며, 북부 지역에서는 시아파 Houthi 반군이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남부 지역에서는 분리주의 세력과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(AQAP)가 활동을 전개하는 등 치안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 표 1 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	2016 ^e
경제성장률	2.2	3.9	1.8	-33.2	-25.2
소비자물가상승률	9.9	11.0	8.0	30.1	21.6
재정수지 / GDP	-5.4	-8.0	-8.8	-15.3	-13.1

자료: EIU

□ 내전 지속에 따른 경제 침체로 2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 전망

- ‘아랍의 봄’ 사태에 따른 반정부 시위 발발로 인해 2011년 경제성장률은 -15.1%를 기록함. 그 후 기저효과에 따라 양(+)의 경제성장률로 전환하였으나 원유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*, Houthi 반군과 정부 간 갈등으로 인해 2012~14년 중 연평균 성장률이 2.5%에 그침.

* 일일 원유생산량(천 배럴): 190('12) → 150('13) → 145('14) → 47('15)

- 2015년 경제성장률은 사우디아라비아의 Houthi 반군 공습(3월)에 따른 내전 격화 및 원유생산 중단으로 -33.2%로 급락함. 2016년에도 연료, 전력 부족에 따른 경제활동 정체 및 내전 장기화로 -25.2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
- 정부군-반군 간 내전 지속 및 IS, 알카에다 등 테러조직에 의한 원유 생산시설, 송유관 파괴 등의 영향으로 2015년 4월 이후 원유·가스 생산이 중단된 상황임.

□ 생필품 가격 상승, 리얄화 가치 하락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
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소요사태와 테러 발발로 인한 정정불안, 원유생산 감소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2014년까지 10% 내외의 높은 수준을 지속함.

- 2015년에는 내전 격화에 따른 생필품 품귀 현상으로 생필품 가격이 급등한 결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0.1%를 기록하였으며, 2016년에도 리알화 평가절하*(4월)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21.6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
* 달러당 리알화 환율은 215리알에서 250리알로 16.3% 상승

□ 석유 부문의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기조 지속

- 부족간 갈등으로 분열을 거듭하는 민심의 수습, 부족한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투자 등으로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적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음.
- 2015년에는 공공부문 임금 미지급 등 긴축정책 시행으로 재정지출이 전년 대비 46% 감소함. 그러나 석유수출 수입(收入) 감소, 국제원조 중단으로 재정수입이 전년의 1/3 수준에 불과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15.3%로 상승하였으며, 2016년에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석유산업과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

- 석유산업은 수출의 85%, 재정수입의 70%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유가 등락 및 원유수급 변동 등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임.
 - 최근 신규 유전 탐사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알카에다 등의 테러 활동에 따른 석유 부문의 외국인투자 위축으로 인해 원유생산량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.
- 한편 농업은 GDP의 22%, 인구의 75%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나, 영농 기술이 부족하고 비료 구입여력이 없어 생산성이 매우 낮으며, 고질적인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. 또한 농산물의 대부분은 카트(qat)이며, 식량용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.
 - 카트는 마약성 식물로 세계보건기구(WHO)에 의해 국제 유통이 금지되었으나 예멘인들이 즐기는 기호품임. 환금성이 높아 곡물 대신 카트를 재배하는 지역이 증가해 식량 증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.

□ **열악한 인프라 환경, 만연한 부정부패가 경제성장에 제약으로 작용**

- 세계경제포럼(WEF)의 '글로벌경쟁력지수(GCI) 2016-17'에 따르면 예멘은 조사대상국 138개국 중 종합순위 138위로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도로, 철도, 전력 등 기초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중동의 최빈국임.
 - 항만(120위), 도로(129위), 공항(137위), 전력공급(138위) 등 세부 항목에서도 세계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음.
- 또한 Saleh 대통령의 재임기간(1978~2012년) 동안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정부 요직을 독점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등 부정부패가 만연해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.
 - 2015년 UN은 Saleh 대통령이 석유·천연가스 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, 국민들에게 지급될 연료보조금을 착복하는 등 재임기간 동안 최대 600억 달러를 부정축재 했다고 밝힘.
 - 국제투명성기구(TI)의 '부패인식지수(CPI) 2015'에 의하면 예멘은 시리아, 에리트리아,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168개국 중 154위로 최하위 수준임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**천연가스 생산을 통한 재정수입원 확보 기대**

- 2005년 승인된 Yemen LNG(YLNG) 프로젝트*에 따라 2009년에 최초로 천연가스 생산을 개시, 2034년까지 25년간 연 620만 톤의 천연가스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.

* 프랑스의 Total(39.6%), 미국의 Hunt(17.2%), 예멘가스공사(16.7%), 예멘사회보장연금청(5%) 외에도 한국 사업주들이 다수 참여(한국가스공사 8.9%, 현대종합상사 3%, SK에너지 6.9%, 삼환기업 1.6%, 한국석유공사 1.1%).

-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2015년 말 0.3조 m³로,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원유를 대체할 주요 재정수입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. 다만, 내전 지속으로 천연가스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.

□ **지질학적 이점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 보유**

- 해안 및 산악지형의 독특한 지리적 구조로 해풍 및 계곡풍의 속도와 안정성이 높아 풍력발전에 유리함. 또한 3개 지각판의 마찰경계에 위치하고 화산지역이 다수 분포해 있어 지열 잠재력도 풍부함.

- 정부는 2010년 신재생에너지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모카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('10.6월), 다마르 주 지열 탐사공 개발 프로젝트('14.6월)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.

다. 정책성과

□ 경제 다각화 추진 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침

- 2006년부터 제3차 5개년 개발계획을 통해 천연가스, 농업, 수산업 및 관광업 발전을 추진하였으나, 천연가스 부문 외에는 교통, 전력 등 기본 인프라의 부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.

□ 연료보조금 삭감에 따라 국민적 반발에 직면

- 2014년 7월 정부는 재정건전화 조치의 일환으로 연료보조금을 삭감한 결과 휘발유와 디젤유의 가격이 각각 60%, 95% 상승함.
 - 2013년 기준 정부 지출액 128.7억 달러 중 연료보조금 지출액이 약 30억 달러로 23%에 달함.
- 그러나, 연료비 인상 발표 후 수도 사나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타이어를 불태우는 등 연료비 인상에 반대하는 소요사태가 발생함.
 - 2005년에도 정부는 연료비 인상을 추진하였으나, 예멘 전역에서 이에 반발하는 폭력 시위가 발생해 연료비 인상을 취소한 바 있음.

3. 대외거래

□ 원유수출 및 국제원조 감소로 상품·경상수지 적자 기조 지속

- 원유를 수출하고 식료품 및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무역구조로 인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시현하고 있음.
- 2015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동반 감소하여 상품수지는 전년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나, 국제원조 감소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악화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과 거의 동일한 3.6%를 기록하였음. 2016년에는 마이너스 성장 지속에 따라 동 비중이 7.4%로 급등한 것으로 추정됨.

Ⅲ. 정치·사회동향

1. 정치안정

□ 과도정부의 연방제 추진으로 Houthi 반군의 쿠데타 발발

- 2011년 ‘아랍의 봄’ 사태에 따른 반정부·민주화 시위의 여파로 2012년 1월 Saleh 대통령이 34년의 장기집권을 마감하고, Hadi 前부통령이 동년 2월 대선에서 당선되어 과도정부를 이끌고 있음.
- 과도정부는 2014년 예멘을 6개의 자치구 연방제로 개편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였으나 북부의 시아파 Houthi 반군이 이에 반발하여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였음.
 - 예멘의 유전이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연방제로 분할 시 Houthi의 거점인 북부 사다 지역은 경제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음.
- Houthi 반군은 2015년 1월 수도 사나의 대통령궁을 점령한 데 이어, 2월 임시 헌법을 발표해 기존 의회를 해산하고 새 의회를 구성함. 이에 Hadi 대통령은 아덴으로 피신한 후 3월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함.

□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내전 개입으로 교전 장기화 양상

- 2015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는 Houthi 반군을 불법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, 9개 수니파 국가와 동맹군을 결성하여 Houthi 반군을 공습함. 한편, 시아파 국가인 이란은 Houthi 반군을 지원함에 따라 예멘 내전이 사우디아라비아-이란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게 됨.
- 2016년 8월 쿠웨이트에서 개최된 평화협상에서 Houthi 반군이 UN의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지난 3개월 간 지속된 정부-반군 간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내전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.

2.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

□ 알카에다 지부(AQAP), 이슬람국가(IS)의 세력 확장으로 치안불안 심화

- 2010년 1월 알카에다 사우디아라비아 지부와 예멘 지부의 통합으로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(AQAP)가 출범함에 따라 국제 테러세력의 중심으로 부상함.
 - AQAP는 2010년 1월 '아덴 아비안' 군을 창설하여 조직을 체계화한 이후 예멘 주재 영국 대사관 폭탄 테러, 소포 폭탄 테러 등 다수의 테러사건을 저지르며 예멘 및 국제사회의 큰 위협이 되고 있음.
 - '2015 글로벌 테러 지수(GTI)'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AQAP의 테러에 의한 사망자 수가 1,275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됨.
- 한편 이슬람국가(IS) 역시 예멘 내전의 혼돈을 틈타 세력을 확장해 예멘 전역에서 폭탄 테러를 자행하고 있음.
 - 2016년 6월과 8월 무칼라와 아덴 지역에서 IS 소행의 폭탄 테러로 각각 43명, 60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함.

□ 내전에 따른 극심한 빈곤율, 높은 실업률로 생활난 심각

- 중동 지역의 최빈국으로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매우 열악함. 특히 1년 이상 지속된 내전으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, 국민 대다수가 극심한 빈곤 상황에 처해 있음.
 - 세계보건기구(WHO)는 현재까지 예멘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7천 명, 부상자가 3.6만 명, 난민이 12만 명에 달하며, 인구의 82%(2,100만 명)가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힘.
 - 2014년 기준 국민의 54%가 빈곤선 이하로 집계되었으며, 유아사망률은 1,000명 당 47.4명에 달함.
- 아울러 공식 실업률이 35~40%, 청년실업률은 70%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. 대부분의 노동 인력이 미숙련 노동자로 농업부문에 편중되어 있고 제조업 부문이 취약해 신규 고용창출이 어려움.

3. 국제관계

□ 알카에다 지부(AQAP) 소탕을 위해 미국과 군사적 협력 강화

- 예멘은 2001년 9.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 테러전쟁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미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, 2011년 이후 예멘에 대한 미국의 경제·군사·인도적 지원 규모는 10억 달러에 달함.
-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연합군에 무기 등을 지원하며 예멘 정부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옴. 그러나 최근에는 무인기 공격으로 알카에다 최고지도자를 사살하고, Houthi 반군 기지를 폭격하는 등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음.

□ GCC 국가들과의 유대관계 강화 노력

- 예멘은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를 지지함에 따라 쿠웨이트,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예멘 노동자들의 사우디 취업이 제한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음.
 -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(걸프협력위원회) 회원국들에 취업하고 있는 예멘인 근로자들의 송금은 예멘의 주요 외화수입원 중 하나임.
- 그러나 2000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국경협정 체결 등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였으며, 2010년에는 GCC 국가들의 주도로 예멘을 지원하기 위한 '예멘의 친구들'(Friend of Yemen) 모임이 결성되었음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외채부담 경감

- 1990년 통일 직후 외채가 급증하였으나 파리클럽에 의해 3차례(1996년, 1997년, 2001년) 외채 리스케줄링을 받으며 외채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음.
 - 2015년 기준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과 D.S.R.은 각각 24.8%, 3.9%로 비교적 양호한 편임.

- 한편, IMF는 2010년(3.7억 달러)과 2012년(9.4억 달러)에 이어, 2014년 9월에도 예멘의 거시경제 안정과 경제성장 증진을 위해 5.5억 달러 규모의 확대신용차관(ECF)을 제공함.

2. 국제시장평가

□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

- OECD는 예멘의 정치·사회 불안 지속으로 인해 2010년 4월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하향 조정 후 현재까지 7등급을 유지하고 있음. 한편, 국제신용평가 3사는 동국에 대해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.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당 행	E (2016. 12)	E (2014. 10)
OECD	7등급 (2016. 1)	7등급 (2015. 1)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국교 수립 : 1985년 8월 22일 (북한과는 1963. 3. 9. 수교)
- 주요 협정 :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차관협정('03)
- 해외직접투자 현황 : 2016년 9월말 기준 8건, 1,313,423천 달러(누계기준)
- 교역규모

<표 4> 한·예멘 교역 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2013	2014	2015	2016.10	주요 품목
수 출	179	322	203	110	석유제품, 자동차, 건전지
수 입	1,663	2,392	361	13	천연가스, 동제품, 알루미늄
교역규모	1,842	2,714	564	123	-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V. 종합의견

-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, 내전 등에 따른 정치·사회 혼란 지속 및 원유생산 중단으로 인해 2016년에도 전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- 천연가스 생산,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방면에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, 농업 위주의 경제구조, 열악한 인프라 및 만연한 부정부패 등이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.
- 2012년 1월 Saleh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마감하고 Hadi 과도정부가 출범 하였으나, Houthi 반군의 정부군 공격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개입으로 내전이 격화됨. 아울러 혼란을 틈타 알카에다 지부(AQAP) 및 IS의 테러 활동으로 정치·사회 불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.
- 2015년 기준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과 D.S.R.은 각각 24.8%, 3.9%로 양호한 편임. 그러나 정정 불안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입 위축으로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대외지급능력이 크게 악화됨.

조사역 조재동 (☎02-6255-5727)
E-mail: jjd8948@koreaexim.go.kr